광주·전남 생활체육인들, 4년 참았던 땀·열정 쏟아낸다

내일 개막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북에서 4년만에 정상 개최
광주 32종목 730명·전남 35종목 942명 참가…갈고 닦은 기량 겨뤄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인 '2023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북 일원에서 4년 만에 개최된다.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 6만 여명이 참가해 43개 종목(정식종목 40, 시범종목 3)에서 고향의 명예를 걸고 경쟁한다.

그동안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순연, 분산 개최됐었다.

광주선수단은 검도 등 32개 종목 730명의 동호인들이 출전한다.

광주선수단 최고령은 강정구(88) 선수로, 평소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에 출전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축구 종목의 신재민(9)은 최연소 참가자로 축구 13세 이하부에 출전한다.

오는 28일 오후 5시30분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4번째로 입장하는 광주선수단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 국제스포츠도시 ▲나의 일이 빛나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성공 기원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진정한 행복은 건강한 삶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이번 대축전에 참가하는 동호인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마음껏 즐기고, 부상에도 각별히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검도, 육상, 게이트볼 등 35개 종목 94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남선수단은 지난해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하는 선수부터 부부, 최고령, 최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MTB여자 그랜드마스터(50대)와 도로사이클 남자 슈퍼그랜드마스터(60대)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한 조성미(52세)씨와 조성민(65세)씨도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한다.

지난해 부부가 육상종목 포환던지기에 나란히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김성봉(75세)·오이순(68세)씨 부부는 대회 2연패 목표로 하고 있다.

소프트테니스 종목에 참가하는 이계수(88세)씨는 최고령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며 최연소는 롤러종목에 이재윤(8세) 군이다.

개회식 때 3번째로 입장하는 전남선수단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2023 전남방문의 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23 전남방문의 해를 맞이해 제104회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에서 열리는 빅 메가 이벤트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선수단 모두 전남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모쪼록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대축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세터 이고은 1년만에 페퍼스 떠난다

도로공사, 박정아 영입 보상선수로 지명…친정팀 복귀

광주AI페퍼스가 주전 세터 이고은(28)을 1년 만에 친정팀 한국도로공사로 보낸다.

페퍼스는 26일 "프로배구 도로공사에서 자유계약선수(FA) 박정아의 보상선수로 세터 이고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고은은 2013-2014시즌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한 프랜차이즈 스타였으나 지난해 3월 FA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9억9000만원의 조건으로 페퍼스로 이적했다.

2022-2023시즌 페퍼저축은행에서 33경기에 출전해 세트 4위의 성적을 올린 이고은은 이로써 1년 만에 도로공사로 복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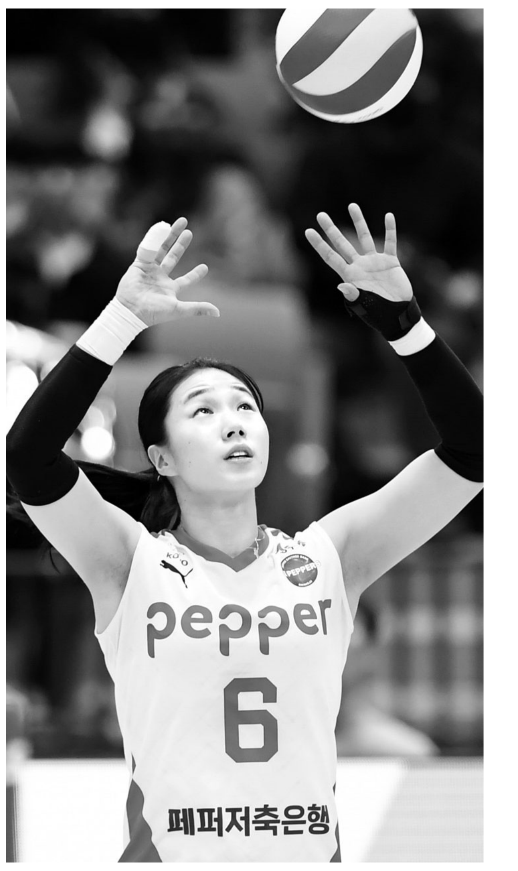
도로공사는 페퍼스가 이고은을 보호선수로 지정하지 않자 보상선수로 선택했다.

페퍼스가 기존 세터 박사랑과 이현을 대체카드로 중용할지 트레이드를 통해 포지션을 보강할지 주목된다.

페퍼스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내부 자원을 활용하지 트레이드를 통해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등을 놓고 구단에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2-2023시즌 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주포 박정아는 최근 FA 자격을 취득한 뒤 페퍼스와 연간 총보수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

도로공사는 박정아의 지난 시즌 연봉(4억3000만원)의 200%인 7억6000만원과 이고은을 보상 선수로 받았다.



이고은

한편, 현대건설은 이날 자유계약선수(FA)로 이적한 황민경(32·IBK기업은행)의 보상 선수로 아웃사이드 히터 김주향(24)을 지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년7개월 만의 복귀 정현 "맘 같지 않네"

서울오픈챌린저 32강전 패배
광주오픈챌린저 등 출전 계획

'호주오픈 4강'의 신화를 쓴 정현(랭킹 없음)이 2년 7개월 만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 복귀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정현은 26일 서울 올림픽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ATP 투어 서울오픈 챌린저(총상금 16만 달러) 남자 단식 1회전(32강)에서 조던 톰프슨(91위·호주)에게 0-2(2-6 4-6)로 졌다.

2020년 9월 프랑스오픈에서 예선 탈락한 뒤 고질인 허리 부상 탓에 회복에 집중하던 정현은 오랜만에 국내 팬들 앞에서 치른 복귀전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다.

정현은 2018년 호주오픈 단식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최고인 4강에 오르며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후 허리 부상 등으로 꾸준하게 활약하지 못했다.

회복에 집중해오다 올해 1월쯤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해온 정현은 와일드카드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복식에 출전하지 않아 이번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정현은 와일드카드 등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내에서 이어 열리는 광주오픈 챌린저, 부산오픈 챌린저에도 출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정윤성(363위·의정부시청)이 페터 고요프치크(345위·독일)에게 2-0(6-2 6-3)로 완승했다.

정현이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서울오픈 챌린저에서 호주의 조던 톰프슨과 단식 예선 32강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윤성은 톰프슨을 상대로 8강 진출을 다툰다.

두 선수는 2018년에만 2차례 대결했는데, 모두 톰프슨이 승리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남지성(560위·세종시청)은 1번 시드 맥스 퍼셀(89위·호주)에게 0-2(3-6 4-6)로 패했다. 이제문(649위·KDB산업은행)은 마크 폴만스(209위·호주)에게 0-2(3-6 2-6)로 패했다.

/연합뉴스

LPGA 김효주 "모든 대회 톱10 목표"

오늘 개막 LA챔피언십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효주가 "모든 대회에 톱10에 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주는 27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LPGA 투어 JM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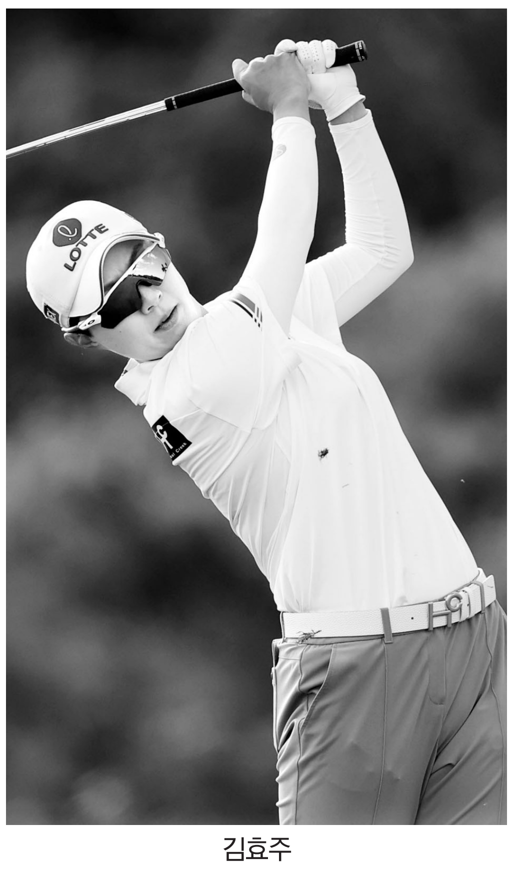
대회 개막을 앞두고 2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효주는 "이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는 한 번밖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연습 라운드는 많이 했던 곳"이라며 "대회로 한 번 나왔을 때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파71·6천258야드)에서 열리는데 김효주가 이 코스에서 개최된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8년 LA 오픈이었다. 당시 김효주는 컷 탈락했다.

그러나 김효주는 "이후 코스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오지 않았는데, 연습해보니 코스가 기억나고 괜찮은 것 같다"며 "2018년에는 샷이 잘 안될 때여서 어렵게 느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주 메이저 대회로 열린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11위에 오른 김효주는 "모든 대회에 톱10에 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그린이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린을 지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다"고 대회에 임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김효주는 5월 초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에 나갈 예정이다.



김효주

그는 "큰 대회가 있다고 해서 그 대회에 초점을 맞추는 편은 아니다"라며 "매 대회 똑같다는 생각으로 경기하는 만큼 이번 주도 이번 대회에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 1라운드를 한국시간으로 28일 0시 21분에 안나린, 린시위(중국)와 함께 시작한다.

/연합뉴스

전남 청소년들 스포츠 활동 탄력 받는다

도체육회,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 예산 1억원 확보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대한체육회 2023년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공모 사업에서 예산 1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축구, 배드민턴, 배구, 볼링, 스키 등 총 5개 종목에 각각 1950만원씩 지원된다.

도체육회는 경기도(1억2500만원)에 이어 인천과 함께 전국 2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사업은 오는 7월 축구와 배드민턴을 시작으로, 9월에는 볼링과 배구, 스키는 2024년 1월에 진행된다.

축구는 20개팀 500여명, 배드민턴은 125개팀 250여명, 볼링은 60개팀 120여명, 배구는 66개팀 830여명, 스키는 34개팀 102여명이 각각 참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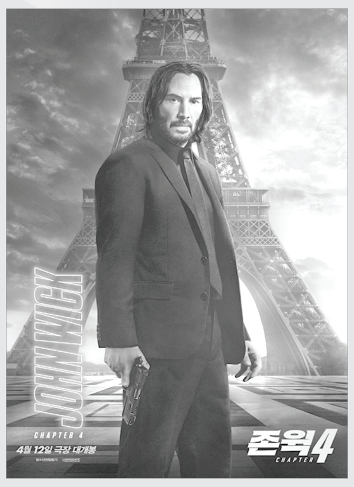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학생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의 장이다.

송진호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며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사업이 선수 육성 기반 구축과 전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2관	드림
3관	존 윅 4
4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5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6관	드림
9관	존 윅 4, 무명, 피기
7관 씨네커플	스즈메의 문단속, 항구의 니쿠코짱!
8관 씨네커플	무명, 리바운드, 렌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